

LRQA 백서

식품 안전,
경영의 중심으로

새로운
생각



LRQA
Your Risk Management
Advantage

목차

[이전](#)

[다음](#)



개요

03

식품 안전, 지금이 중요한 이유

04

이사회에서 식품 안전의 중요성을 높이는 방법

05

모범적인 식품 안전 경영이란 무엇인가

06

변화를 가로막는 사각지대와 장벽, 그리고 변화를 위한 비즈니스적 명분

07

더 나은 거버넌스를 향해

09

관심과 노력에 따라 달라지는 미래

11

소개

[이전](#)

[다음](#)



식품 안전은 소비자 신뢰의 기반이자, 기업의 지속 가능한 성장을 가능하게 하는 핵심 요소입니다.

그러나 여전히 많은 기업에서 식품 안전은 기업 지배구조와 분리된 문제로 다뤄지고 있습니다.

위험이 갈수록 복잡해지고 그 결과가 즉각적으로 나타나는 환경 속에서, 이 백서는 경영진이 현장의 운영 통제와 전략적 관리 사이의 간극을 어떻게 좁힐 수 있을지를 탐구합니다.

심층적인 추적성과 투명성에 대한 요구는 이제 기업의 공급망 관리 방식을 근본적으로 변화시키고 있습니다.

오늘날 식품 시스템은 그 구조가 너무 복잡해 더 이상 종이 문서나 스프레드시트에 의존한 관리는 유효하지가 않습니다.

사물인터넷(IoT) 기술, 안전한 기록 관리를 위한 분산 기록 기술, 그리고 클라우드 기반 전사적 자원관리(ERP) 시스템과 같은 디지털 도구들이 투명성 강화의 방식을 혁신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기술을 통해 기업은 원재료가 이동하는 전 과정을 정확하게 추적하고 검증할 수 있으며, 이를 통해 리스크를 줄이고, 소비자 신뢰와 브랜드 가치를 동시에 강화할 수 있습니다.

식품 안전, 지금이 중요한 이유

이전

다음



식품 안전은 타협의 대상이 아닙니다.
식품 산업에서 식품 안전은 브랜드 신뢰의
기반이자, 안정적인 운영과 소비자 보호를
가능케 하는 핵심 요소입니다.

그러나 리스크 환경이 빠르게 변화하고, 새로운
의제들이 이사회 안건의 중심을 차지하면서 식품
안전이 점점 우선순위에서 밀려나는 위험에
직면하고 있습니다. 이사회는 이제 사이버 공격,
ESG 규제, 지속가능성 평가 등 보다 시급하고
주목도가 높은 리스크에 집중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이슈들은 당장의 대응이 필요하고, 기업
평판에 미치는 영향도 크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경영진의 관심이 그쪽으로 쏠리고 있습니다.
그 결과, 식품 안전은 이미 충분히 관리되고 있을
 것이라는 안일한 인식 아래 중요한 논의에서
종종 제외되곤 합니다.

만약 그렇지 않다면, 그 자체가 이미
위험의 신호일 수 있습니다.

오늘날의 식품 안전 리스크는 그 형태가 빠르게 변화하고 있습니다. 기후 변화는 생물학적·
화학적 위협을 증폭시키고, 글로벌 공급망은 더욱 복잡하고 불안정해지고 있습니다. 또한
자동화와 비용 효율화가 생산 구조를 바꾸는 과정에서, 리스크 평가 체계는 그 속도를 따라가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와 동시에, 미디어 환경과 소비자의 높은 관심으로 어떤 사고라도 순식간에
확산되어 공장 밖, 기업 전체의 재정과 평판에 장기적인 타격을 줄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많은 이사회와 경영진은 식품 안전을 기술적이거나 운영 차원의
문제로 바라보는 경향이 있습니다. 일부 조직에서는 식품 안전이 독립된 전략 주제가 아닌,
부서별 보고 항목의 일부로만 다뤄지고 있기도 합니다. 과거의 안정적인 성과는 일종의 안심
효과를 만들어내고, 리콜이나 사고와 같은 ‘전통적인 경고 신호’가 없을 경우 침묵은 종종 ‘
안전하다’는 잘못된 확신으로 해석되곤 합니다.

이런 괴리 상황의 원인과 개선 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최근 한 업계 컨퍼런스에서 식품 안전
분야의 깊은 경험과 전문성을 지닌 세 명의 리더가 한자리에 모였습니다. 이들은 각자의 경력
속에서 정책을 주도하고, 이사회에 인식을 변화시키며, 세계적으로 잘 알려진 기업들의 식품 안전
전략을 이끌어온 인물들입니다. 이번 백서는 이들이 나눈 논의를 바탕으로,

식품 안전이 단순히 어떻게 관리되는가를 넘어, 경영의 최상위 수준에서
어떻게 이해되고, 우선순위로 다뤄지며, 또 어떻게 거버넌스 체계에
통합되어야 하는가를 다룹니다. 결국 식품 안전은 리더십의 문제입니다.

클리오나 머피(Cliona Murphy)는 토론 중 이렇게 말했습니다:

**“어떤 조직의 분위기와 리스크 감수
성향을 결정하는 것은 바로 이사회입니다.”**

만약 식품 안전이 이사회 의제에 포함되어 있지 않다면,
이는 조직의 문화와 전략이 이미 어딘가에서 어긋나고 있다는 신호입니다.
즉, 위험은 보이지 않는 곳으로 밀려나고, 확신은 통제력으로 착각되는
상황이 벌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식품 안전은 단순히 체크리스트에 표시하고
넘어갈 항목이 아닙니다. 또한 누군가에게 미룰 수 있는 책임도 아닙니다.

중요한 것은, 오늘날의 경영진이 이 사실을 얼마나 분명하게 인식하고
있느냐는 점입니다.



킴벌리 케리 코핀
(Kimberly Carey Coffin)

LRQA 공급망 어슈어런스
담당 기술 이사



로이 커비
(Roy Kirby)

FoodsafERM 파트너, 전 국제식품안전협력기구
(GFSI) 공동 의장, 전 몬델레즈 인터내셔널
식품안전·미생물학·독성학 총괄 이사



클리오나 머피
(Cliona Murphy)

아일랜드 식품위원회(Bord Bia) 비상임 이사,
전 GFSI 운영위원회 위원, 전 펄스코 품질보증 부사장,
공인 이사(Chartered Director)

이사회에서 식품 안전의 중요성을 높이는 방법

식품 안전은 그 중요성에도 불구하고, 최고 의사결정 단계에서 충분히 논의되지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기술력이 뛰어나고 인력이 잘 갖춰진 조직조차 식품 안전을 여전히 운영상의 문제로만 인식하곤 합니다. 가끔 경영진의 의제에 오르더라도, 대부분의 논의는 심사 점수나 리콜 건수처럼 이미 벌어진 일에 초점을 맞춘 사후 지표에 머무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런 지표만으로는 잠재적 위험을 미리 파악하기 어렵습니다.

로이 커비는 이렇게 지적했습니다: 식품 리콜이 발생한 사업장 가운데 관련 심사를 받지 않은 곳이 과연 있을까요? 중대한 사고를 겪은 기업 중에서도 필요한 시험 절차를 거치지 않은 곳이 있었을까요? 문제는, 경영진이 여전히 이런 결과 지표만으로 식품 안전을 판단하고 있다는 점입니다. 커비는 이어, “마치 사고가 난 뒤의 통계로 안전 수준을 평가하는 것과 같습니다. 산업안전 분야에서는 이미 이런 방식에서 벗어나 아차사고, 교육 이수율, 현장 행동 변화와 같은 선행 지표로 위험을 관리하고 있죠. 식품 안전 역시 같은 전환이 필요합니다.”

핵심은 인식과 가시성의 문제입니다. 식품 안전을 경영의 핵심 의제로 다루는 조직은 이를 단순한 컴플라이언스에 필요한 비용이 아니라, 제품과 브랜드, 그리고 성장에 대한 신뢰의 기반으로 보고 있습니다. 이러한 기업들은 사고가 발생한 뒤에 대응하는 것이 아니라, 기술적 전문성과 전략적 관점을 긴밀히 연결해, 리스크를 미리 감지하고 관리하는 체계를 구축하고 있습니다.

클리오나 머피는 식품 안전을 경영의 핵심 의제로 다루는 조직들이 어떻게 차별화되는지를 다음과 같이 설명했습니다:

- 최고경영진이 정기적으로 식품 안전 정책을 검토하고, 연 1회 이상 이사회에 보고합니다.
- 식품 안전 관련 핵심성과지표(KPI)에는 예방적 지표와 결과 지표가 모두 포함되어 있으며, 이는 전사적 리스크 관리 체계 속에 통합되어 있습니다.
- 이사회 구성원이나 임원진이 생산 현장을 방문할 때는, 보건·안전과 마찬가지로 식품 안전, 위생, 관리 체계에 대해 직접 질문합니다.
- 일부 기업은 식품 안전 성과를 ESG나 지속가능성 보고서에 포함해, 이를 투자자와 이해관계자에게 중요한 전략적 가치로 제시합니다.

무엇보다 이런 기업들은 ‘우리는 잘하고 있다’는 막연한 자신감에 기대지 않습니다. 식품 안전이 정기적으로 논의되고, 검증되고, 강화될 수 있는 체계를 구축해 스스로를 끊임없이 점검합니다.

클리오나 머피(Cliona Murphy)는 이렇게 덧붙였습니다. “식품 안전이 경영의 최상위 단계에서 분명히 드러나는 기업일수록, 그 가치는 기업의 미션과 핵심 가치, 내부 통제 시스템 속에 자연스럽게 녹아 있습니다. 기업이 ‘자신 있게 내놓을 수 있는 제품’을 이야기할 때, 그 말은 곧 리더십이 진정으로 중요하게 여기는 것이 무엇인지 보여주는 신호이기도 합니다.”

김벌리 코핀은 LRQA가 최근 진행한 벤치마킹 조사 결과를 통해 이 같은 인식의 괴리가 여전히 존재한다는 사실이 드러났다고 말했습니다. “저희가 이번에 조사한 주요 글로벌 식품기업들 가운데 일부에서는 경영진 차원에서 식품 안전이나 과학적 관점을 대표하는 명확한 목소리를 찾기 어려웠습니다. 어떤 경우에는 그 역할이 공급망 부서의 몇 단계 아래에 머물러 있기도 했죠. 그런 구조에서는 식품 안전에 관한 메시지가 최고경영진이나 이사회에 도달하기도 전에 이미 힘을 잃게 됩니다.”

이처럼 식품 안전에 대한 책임이 지나치게 현업 단계에만 머물러 있으면, 경영진은 리스크를 충분히 인식하지 못한 채 전략적 결정을 내리게 될 뿐 아니라, 새로운 협력사를 도입하거나 자동화를 추진하고, 생산 방식을 바꾸는 과정에서도 식품 안전에 대한 고려는 종종 비용이나 일정, 법적 리스크보다 후순위로 밀려납니다.

식품 안전 담당자들이 더 큰 목소리를 내는 것도 중요하지만 코핀은 기업이 듣는 방식을 바꿔야 한다고 강조하면서, 식품 안전이 전략적 논의의 중심으로 자리 잡을 수 있는 구조를 만들어야 한다고 지적했습니다.

모범적인 식품 안전 경영이란 무엇인가

이전

다음



식품 안전이 진정으로 경영의 중심에 자리 잡은 기업은 겉으로 드러나는 조직 구조만 다른 것이 아닙니다. 그 차이는 조직 문화에 있습니다. 이런 기업에서는 식품 안전을 혁신을 방해하는 걸림돌이나 단순히 관리해야 하는 컴플라이언스 항목으로 보지 않습니다. 오히려 그것을 모든 구성원이 함께 책임지는 일, 그리고 신뢰와 평판, 성장의 기반을 이루는 핵심 가치로 여깁니다.

이런 기업들은 식품 안전을 부차적인 절차로 취급하지 않습니다. 리스크 관리 체계 속에 통합하고, 외부 이해관계자에게 성과를 투명하게 공개하며, 식품 안전 정책을 경영진이 직접 검토·승인하고 이사회에서 최소 연 1회 이상 논의합니다. 클리오나 머피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식품 안전은 결국 인명과 직결된 문제이기 때문에 이상적으로는 임직원의 산업안전과 동일한 빈도로 검토되어야 합니다.”

이러한 기업들은 현장 실사에 대한 관점도 다릅니다. 이사회 구성원들은 단순히 사업 성과를 점검하기 위해 실사를 진행하는 것이 아니라, 위생 관리, 공정 통제, 리스크 대응 체계 등 식품 안전의 전반적인 시스템을 직접 확인합니다. 그들은 컴플라이언스와 역량 강화라는 두 가지 관점으로 성과를 평가하며, 문제가 생겼을 때만이 아니라 우수한 결과를 낸 사례에도 주목합니다.

로이 커비는 이런 모범 기업들을 구분 짓는 또 하나의 요인으로 다양성을 꼽았습니다. 많은 이사회 구성원들이 식품 안전 분야의 전문성을 갖추지 못한 탓에 식품 안전이 종종 우선순위에서 밀려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사회는 익숙한 영역에 집중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재무나 인수합병(M&A) 경험이 풍부한 인물은 많지만, 식품 안전에 대한 전문성은 상대적으로 부족하죠. 그래서 더 다양한 배경을 가진 구성원이 필요합니다. 단순히 인구통계적 다양성이 아니라, 서로 다른 경험과 시각을 함께 테이블 위에 올릴 수 있는 다양성이 중요합니다.” 그는 이런 전문성의 폭을 넓히는 노력이 이사회가 보다 자신 있게 참여하고, 더 깊이 있는 질문을 던질 수 있도록 돕는다고 덧붙였습니다.

중요한 것은 조직 문화의 정렬입니다. 성숙한 기업일수록 식품 안전을 운영의 한 부분으로 고립시키지 않고, 기업 전반의 리스크 논의 속에 자연스럽게 연결합니다.

또한 모범적인 기업들은 학습의 여지를 남겨둡니다. 성숙한 식품 안전 문화란 평상시의 성과로만 평가되지 않습니다. 아차사고나 실제 사건이 발생한 이후, 조직이 무엇을 배우고 어떻게 변화하느냐에 의해 비로소 정의되는 것입니다.

“문제가 발생했을 때, 앞서 나가는 조직은 그 경험에서 배우고 근본적인 변화를 만들어냅니다. 반면, 제자리걸음하거나 뒤로 물러서는 조직은 겉으로 드러난 문제만 봉합하는 데 그치게 됩니다.”

- 클리오나 머피

식품 안전을 철저히 지키는 조직을 구분 짓는 것은 가시성, 명확성, 그리고 책임의식입니다. 이들은 단지 리콜이 없었다는 이유로 모든 것이 잘되고 있다고 가정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침묵이야말로 위험의 신호일 수 있다’는 사실을 알고 있기 때문에 조직의 모든 단계에서 위험이 드러나고, 이해되고, 대응될 수 있도록 하는 체계를 갖추고 있습니다.



변화를 가로막는 사각지대와 장벽, 그리고 변화를 위한 비즈니스적 명분

기업 성과의 핵심임에도 불구하고 식품 안전이 최고경영진의 최대 관심사가 아닌 이유는 무엇일까요?

이 질문은 킴벌리 코핀, 로이 커비, 클리오나 머피가 함께한 토론에서 가장 솔직하고 유의미한 논의로 이어졌습니다. 세 사람은, 겉으로는 잘 운영되는 기업들조차 여전히 보이지 않는 장벽에 부딪히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그 원인은 잘못된 인식, 소통의 단절, 구조적 제약, 그리고 문화적 저항에 있었습니다.

가장 흔한 오해는 ‘무소식이 희소식이다’라는 믿음입니다. 머피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리콜이 없었다는 이유로 모든 게 괜찮다고 생각하곤 합니다. 하지만 그런 생각은 리스크가 얼마나 빠르게 변할 수 있는지를 간과하는 거예요. 특히 공급망, 원가 구조, 생산 방식이 바뀌는 시점이라면 그 속도는 훨씬 더 빠릅니다.” 조용하다고 해서 안전한 것은 아닙니다. 침묵을 안심의 신호로 받아들이는 순간, 가장 중요한 경고를 놓치게 됩니다.

또 다른 문제는 ‘식품 안전은 누군가가 알아서 하고 있을 것’이라는 태도입니다. 그 ‘누군가’가 기술 담당 임원일 수도 있고, 공급망 책임자나 외부 심사기관일 수도 있습니다.

이런 안일한 자세는 제품의 안전성과 신뢰성에 대한 충분한 이해 없이 전략적 결정이 내려지는 치명적인 결과로 이어집니다. 로이 커비는 이렇게 덧붙였습니다. “식품 안전이 다른 리스크와 다른 이유는 분명합니다. 식품 안전은 결국 현장의 직원들, 즉 위생, 검사, 세척을 담당하는 사람들의 손에 달려 있습니다. 하지만 이들의 목소리가 이사회까지 전달되는 일은 거의 없습니다.” 이런 단절은 종종 조직의 리스크 관리 방식에서 비롯됩니다. 머피는 “식품 안전을 이사회 안건으로 올리는 일은 단순히 우선순위의 문제가 아닙니다.

그건 구조의 문제입니다. 이사회는 바쁘고, 회의 시간은 제한되어 있습니다. 식품 안전이 전사적 리스크 관리 체계 안에 포함되어 있지 않으면 자연스럽게 논의 대상에서 빠집니다. 전사적 리스크 관리 대장이 없으면 심사나 리스크 위원회로 올라가지 못하고, 그렇게 되면 결국 이사회에도 상정되지 않게 됩니다.”

식품 안전이 어렵게 이사회 논의에 올라간다 해도, 그 전달 방식이 또 다른 장벽이 되기도 합니다. 전문 용어나 과학적 접근법에 의존한 보고서는 비전문 경영진에게는 쉽게 와닿지 않기 때문입니다. 커비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식품 안전 전문가들이 항상 좋은 커뮤니케이터는 아닙니다. 메시지가 명확하지 않으면, 결국 무시되게 되죠.”

머피도 이에 동의했습니다. “식품 안전이 이사회 안건으로 다루어지는 시간은 길어야 10분 정도입니다. 당연히 핵심만 전달해야 합니다. 그러려면 매출, 수익, 브랜드, 사람, 즉 비즈니스 언어로 이야기해야 하겠죠? 컴플라이언스의 문제가 아니라, 기업의 성장과 소비자 신뢰의 문제로 연결해 말해야 한다는 뜻입니다.”

킴벌리 코핀 역시 강조했습니다. “식품 안전 리스크를 너무 기술적인 문제로만 다루는 경향이 있는데, 이제는 대화의 틀 자체를 바꿔야 합니다. 식품 안전 문제가 발생했을 때, 그것이 재무적으로, 운영적으로, 평판 측면에서 무엇을 의미하는지, 또 손실되는 비용, 브랜드에 입을 피해, 비즈니스 연속성 등은 어떤지를 얘기해야 비로소 경영진이 귀를 기울일 것입니다.”

토론은 자연스럽게 조직 문화의 문제로 이어졌습니다. 일부 기업에서는 식품 안전팀이 지나치게 보수적이거나 제약적인 부서로 인식되는데, 이런 인식은 다른 부서와의 거리감을 만들고, 결국 협업의 문화를 약화시킵니다.





“이제 우리는 ‘안 된다’에서 ‘어떻게 하면 될까’로 대화를 바꿔야 합니다. 식품 안전은 혁신을 가로막는 장벽이 아닙니다. 오히려 기업이 설정한 리스크 범위 안에서 혁신을 안전하게 실현하도록 돕는 기반입니다”라고 김벌리 코핀은 설명했습니다.”

이 같은 인식의 간극을 메우기 위해서는, 식품 안전을 책임지는 리더들의 소통 방식부터 달라져야 합니다. 머피는 법무, 브랜드, 구매, 운영 등 조직 전반에서 협력할 수 있는 파트너를 찾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하며, 가족 중에 식품 알레르기를 겪고 있거나 과거 식품 안전 사고를 직접 경험한 이사회 구성원은 특히 강력한 지지자가 될 수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아울러, 세계 식품 안전의 날(World Food Safety Day)과 같은 기념일은 경영진과 의미 있는 대화를 나눌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됩니다. 이런 자리를 통해 명확한 데이터, 시각적으로 직관적인 자료, 간결한 메시지로 식품 안전의 중요성을 효과적으로 전달할 수 있습니다.

코핀과 커비는 또한 성과를 더 정밀하게 보여줄 수 있는 선행 지표의 활용이 중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재작업률, 아차사고 건수, 부적합 문제가 해결되기까지 걸린 시간, 직원 이직률과 같은 지표는 심사 점수나 소비자 불만 건수보다 잠재적인 리스크를 훨씬 빠르게 드러냅니다. 커비는 “품질관리자가 자주 바뀌거나, 위생팀 인력이 늘 부족하다면 그건 이미 위험 신호입니다. 이들이야말로 현장에서 리스크를 가장 먼저 감지하는 사람들이니까요”라고 말했습니다.

결국 가장 큰 장애물은 식품 안전을 바라보는 관점 그 자체일지도 모릅니다. 식품 안전을 단지 컴플라이언스의 문제로만 여긴다면, 성장을 최우선시하는 기조 속에서 그 중요성을 지켜 내기란 어려울 수 있습니다. 하지만 식품 안전을 브랜드를 향한 신뢰, 기업의 리질리언스, 장기적인 가치 창출의 동력으로 본다면 그 순간부터 식품 안전은 기업의 성공을 위해 필요한 요소가 됩니다. 머피는 이렇게 덧붙였습니다. “단순히 법적 책임의 문제가 아닙니다. 기업의 평판과 신뢰의 문제죠. 그걸 이해하지 못하는 경영진이 있다면, 혁신을 놓치고 있는 겁니다.”

더 나은 거버넌스를 향해

이전

다음



식품 안전을 바라보는 시각이 달라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진정한 변화는 견고한 거버넌스가 뒷받침될 때 비로소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단순히 정책을 수립하거나 대시보드를 검토한다고 해서 이러한 체계가 세워지는 것은 아닙니다. 식품 안전을 기술적 관리 항목이 아닌 전략적 경영 과제로 인식하고, 그에 걸맞은 책임 있는 리더십과 실질적인 감독 구조를 갖추 때 비로소 진정한 의미의 거버넌스가 완성됩니다.

클리오나 머피는 이러한 변화를 이끌 출발점을 이사회 차원의 명확한 책임 설정이라고 밝혔습니다. “이사회 내에는 식품 안전에 대해 분명한 책임을 지는 인물이 필요합니다. 꼭 전문가일 필요는 없지만, 올바른 질문을 던지고 필요한 정보가 제대로 준비되어 있는지를 확인할 책임은 저야 합니다.” 성숙한 조직에서는 이러한 역할을 심사 또는 리스크 위원회 구성원이 맡거나, 공급망과 생산 현장을 깊이 이해한 운영 전문가가 담당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날, 패널이 제시한 효과적인 거버넌스 모델 중 하나는 ‘3단계 방어 체계’였습니다. 이 모델에서 현장 부서는 1차 방어선, 기술 리더십은 2차 방어선, 내부 심사와 같은 독립적인 검증 부서는 3차 방어선의 역할을 하고 이사회는 이 세 단계를 모두 감독하게 됩니다. 이 구조는 각자의 역할을 명확히 구분해 이사회가 현장 보고에만 의존하지 않도록 돕는 것이 특징입니다. 머피는 “이 체계는 조직이 스스로를 과신하지 않도록 합니다. 항상 같은 사람의 보고만 듣는 것이 아니라, 서로 다른 관점에서 교차 검증된 정보를 확보할 수 있기 때문이죠”라고 설명했습니다.

김벌리 코핀 역시 더 적극적인 참여의 중요성을 강조하며, 성숙한 기업일수록 더 구체적인 질문을 던지고, 더 명확한 답을 요구한다고 말했습니다. “성숙한 기업은 단순히 ‘심사를 통과했는가’를 묻지 않습니다. 그 결과가 무엇을 의미하는지, 그리고 그것이 비즈니스 리스크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까지 함께 묻습니다.

**“이사회가 올바른 질문을 던질 때,
조직 전체가 한 단계 성장합니다.
그러나 침묵이 이어질 때, 그 침묵
또한 조직 전반으로 번져갑니다.”**

– 로이 커비

식품 안전을 기업의 거버넌스 체계 안에 제대로 자리 잡게 하려면, 그 중요성이 공식적인 보고와 평가 과정에서도 분명히 드러나야 합니다. 클리오나 머피는 지속가능경영 및 ESG 공시 보고서가 이를 실현할 좋은 기회라고 말했습니다. “소비자 신뢰와 제품의 완전성을 중요하게 여긴다고 말하면서 보고서 어디에도 식품 안전이 언급되지 않는다면, 이는 말과 행동이 어긋나는 일입니다. 즉, 식품 안전도 보고서에 당연히 포함되어야 한다는 뜻입니다.”

이 원칙은 리스크 관리 체계에도 동일하게 적용되는데, 식품 안전이 전사적 리스크 관리(ERM) 과정에서 빠져 있거나 단순히 운영 리스크의 하위 항목으로 분류되어 있다면, 그에 걸맞은 관심이나 지원을 얻기 어렵습니다. 반대로, 식품 안전을 핵심 리스크 영역으로 다루는 기업들은 보다 명확한 실행 계획과 강력한 통제 체계, 그리고 지속적인 경영진의 관심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여러 국가의 규제 당국은 이사회가 식품 안전을 정기적으로 검토하도록 요구하고 있습니다. 로이 커비는 이렇게 설명했습니다. “기업이 리스크를 이해하고 완화할 법적 책임을 다하기 위해서는 이사회가 식품 안전에 대해 논의해야 합니다.” 클리오나 머피는 이 점을 다시 강조하며, 미국 식품의약국(FDA)과 같은 기관들은 이사회가 매년 식품 안전을 검토하지 않아 리콜이 발생한 경우, 매우 부정적인 평가를 내릴 수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또한, 일부 기업에서는 매년 실시하는 식품 안전 평가가 단순한 모범 거버넌스 관행을 넘어, 법적 또는 규제상 의무로 자리 잡고 있다고 머피는 밝혔습니다.

결국 식품 안전의 거버넌스 수준을 높인다는 것은 절차를 복잡하게 만드는 일이 아닙니다. 명확성과 관심, 그리고 책임의 문화를 세우는 일입니다. 커비의 말처럼, 경영진이 질문을 던지고 진심으로 관심을 보이는 순간, 그 행동 자체가 식품 안전이 조직의 핵심 가치를 보여주는 가장 강력한 신호가 됩니다.

관심과 노력에 따라 달라지는 미래

이전

다음



이번 토론을 통해 드러난 메시지는 분명합니다: 식품 안전이 더 이상 기술적인 문제만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제 식품 안전은 이사회가 다뤄야 할 문제이자, 브랜드의 신뢰와 기업의 지속 가능성을 좌우하는 핵심 과제입니다.

기업을 둘러싼 리스크는 더 복잡해지고, 그 결과는 더 빠르게 나타나며, 소비자와 규제 당국, 그리고 이해관계자들의 기대 수준은 갈수록 높아지고 있습니다. 만약 식품 안전이 경영진의 주요 의제에서 보이지 않는다면, 리더십은 이미 불완전한 정보로 기업 리스크를 판단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지만 다행히도, 이 간극을 메우기 위한 해답은 이미 존재합니다. 새로운 제도를 만들거나, 거창한 조직을 새롭게 구상할 필요도 없습니다. 중요한 것은 단 하나, 재무나 운영, 평판 리스크를 다루는 것과 같은 수준의 주의와 관심, 그리고 책임감으로 식품 안전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식품 안전을 전사적 리스크 관리(ERM) 체계 안에 통합하고, 이사회에서 정기적으로 논의하며, 선행 지표와 후행 지표를 함께 활용해 성과를 평가하고, 그 책임을 최고 리더십 수준까지 끌어올릴 때, 비로소 진정한 변화가 시작됩니다.

이제는 식품 안전에 대한 접근을 바꿔야 할 때입니다.

김벌리 코핀은 “식품 안전 담당자들이 더 큰 목소리를 내야 한다는 뜻이 아닙니다. 경영진과 이사회가 듣는 방식을 바꿔야 한다는 뜻이죠”라고 말하며, 그 변화는 식품 안전을 ‘리스크’가 아닌 ‘영향’의 관점에서 이야기하는 것에서 시작된다고 강조했습니다.

- 실패는 기업에 어떤 대가로 남을까요?
- 식품 안전은 어떻게 더 큰 성과로 이어질까요?
- 아무것도 하지 않았을 때, 그 피해는 얼마나 클까요?

식품 안전을 리질리언스와 혁신, 신뢰를 이끄는 동력으로 바라보는 순간, 그것은 더 이상 부차적인 문제가 아닌 경영 전략의 핵심 과제가 됩니다.

로이 커비는 인식의 전환이 필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식품 안전 관리의 본질은 실패를 피하는 데 있지 않습니다. 변화를 견딜 수 있는 역량을 쌓는 데 있습니다.” 그는 이어, “탁월한 기업은 문제가 생기기를 기다리지 않습니다. 어떤 변화 속에서도 작동하는 시스템을 미리 만들어 둡니다”고 밝혔습니다.

클리오나 머피 역시 조직 문화의 변화가 필요하다고 지적했습니다. “식품 안전은 기업의 한 기능이라기 보다 조직이 어떻게 생각하고 행동하며, 무엇을 진정으로 중요하게 여기는지를 드러내는 거울입니다. 만약 이사회에서 식품 안전을 다루지 않는다면, 그것은 조직 문화에 대한 경고 신호입니다. 그리고 리더십이 그 침묵을 외면한다면, 그 무관심은 결국 조직 전체로 퍼질 수 있습니다.”

식품 안전에 대한 관심은 기회이기도 합니다. 오늘날 식품 산업은 그 어느 때보다 복잡한 공급망, 강화된 외부의 검증, 그리고 복잡해진 리스크 환경 속에 놓여 있습니다. 이러한 환경에서 식품 안전을 명확하고 일관된 체계로 관리하는 기업만이 규제 당국과 고객은 물론, 투자자와 임직원, 그리고 사회 전반의 신뢰를 얻는 기업으로 성장할 수 있습니다.

LRQA는 전 세계 식품 산업 전반의 조직들과 협업하며, 그들이 리스크를 명확히 이해하고, 거버넌스의 성숙도를 진단하며, 시스템 전반에 리질리언스를 내재화 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습니다. 당사는 단순히 성과를 평가하는 데 그치지 않습니다. 조직이 사고의 폭을 넓히고 조직 문화의 방향을 정립하는 동시에, 리더들이 보다 깊이 있고 책임 있는 결정을 내릴 수 있도록 돕는 것이 LRQA의 사명입니다.

식품 안전의 미래는 이제 공장을 넘어 이사회와 경영진이 의견을 나누는 회의실에서, 그리고 리더들이 어떤 가치를 우선순위에 두느냐에 따라 달라질 것입니다.

LRQA 소개

글로벌 리스크 관리 파트너, LRQA

LRQA는 끊임없이 변화하는 글로벌 환경 속에서 고객이 한 발 앞서 나갈 수 있도록 지원합니다.

인증, 사이버 보안, 안전, 지속가능성, 공급망 리질리언스 등 다양한 영역에서 조직이 직면할 수 있는 리스크를 함께 식별하고, 고객 여러분의 상황에 맞춘 스마트하고 확장 가능한 솔루션을 설계함으로써 리스크를 예방, 대비, 보호할 수 있도록 돕습니다.

아울러, 당사는 고객 중심의 원칙을 바탕으로, 지난 수십 년간 축적한 업계 노하우, 데이터 기반 인사이트, 현장 전문가 네트워크를 적극 활용해 어슈어런스, 인증, 검사, 어드바이저리, 교육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LRQA는 현재 전 세계 150여 개국, 61,000개 이상의 고객과 함께 협업을 이어나가고 있습니다.

LRQA - 고객 여러분의 리스크 관리 파트너

문의

더 자세한 정보는 홈페이지(www.lrqa.com/ko-kr)로 문의주시기 바랍니다.



LRQA
2F, T Tower,
30, Sowol-ro 2-gil,
Jung-gu, Seoul
04637
Republic of Korea

LRQA는 제공된 모든 정보가 정확하고 최신 정보인지 확인하기 위해 최선을 다 하고 있습니다. LRQA는 제공된 정보의 오류, 또는 변경에 대한 그 어떤 책임도 지지 않습니다.

